

지난달 광주·전남 자영업자 2만명 이상 줄었다

호남지방통계청 ‘7월 고용 동향’
광주, 취업자 줄고 실업률 상승
전남, 농림어업 취업자 크게 줄어
전국 취업자 17만여명 증가 대조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가 2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 및 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자리 질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광주·전남은 여전히 취업자는 줄어들고 일자리 질 악화도 계속됐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1만명-6.7%)를 중심으로 1만 1000명(-6.2%) 감소했다.

지역 자영업자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된 소비침체 속에서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 증가 및 최근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는 추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이 밖에도 취업자 수 감소 및 실업률 상승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7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에도 고용률은 0.1%포인트(p) 오른 61.4%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이 3.0%로 0.6%p를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 수가 2902만 9000명으로 17만 1000명(0.6%) 증가한 데다, 15-64세 고용률은 0.4% 증가하고 실업률은 0.1% 감소하는 등 고용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과 대비된다. 광주 7월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5000명-20.8%), 제조업(-5000명-4.4%)이 감소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000명-0.8%), 건설업(2000명-3.2%) 등은 증가했다.

지역 경기 부진과 함께 일자리 질도 악화됐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000명(0.9%) 증가하는 동안 임시근로자는 8000명(5.5%) 늘어났다.

전남 역시 지난달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7월 중 전남 자영업자 수는 2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29만 8000명) 대비 1만 1000명(3.8%)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도 100만 4000명으로 1년 전(101만 5000명)보다 1만 2000명(-1.2%) 줄었고, 고용률은 0.7%p 감소한 66.0%를 기록했다. 남성 취업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성 취업자가 1만 1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는 2만 8000명으로 4.9% 증가했고, 실업률도 2.7%로 0.2%p 증가했다.

전남 7월 취업자 수는 지역 기반 산업인 농림어업이 2만 5000명(-11.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1000명-6.0%), 건설업(-5000명-6.0%), 등에서도 줄었다.

전남 지역에서도 일자리 질은 악화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0.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임시근로자가 2.2% 늘어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한국-베트남 탄소섬유 공동발전 전인

서울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탄소섬유 국가 주도 육성 협력 필요”

우리나라 민간 외교 선봉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HS효성첨단소재가 베트남과 탄소 섬유 중심의 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에서의 탄소섬유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탄소섬유는 항공·우주, 자동차 등 전 산업에서 금속 및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전략 사업소재”라며 “대·중소기업 간 분업 구조 속에서 국가 주도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현지 기업 및 정부와 협력해 가치 창출형 제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HS효성은 2007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후 현재까지 46억달러를 투자하고, 1만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바리아붕따우성,



HS효성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향후 베트남 사업의 방향과 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중부 팜남성 등 곳곳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고성능 타이어코드와 테크니컬 인,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HS효성의 연간 베트남 매출만 35억달러에 이른다.

이날 HS효성첨단소재 임진달 대표도 포럼 이후

이러진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토 림(Tô Lâm)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장을 직접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견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어촌공사-전남교육 꿈 재단 글로벌 미래 인재육성 업무협약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12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과 ‘농어촌 가치 확산과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공사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에 대한 미래 세대의 공감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농어촌 현장 기반 생태·체험·진로 교육의 공동 기획과 운영, 전남지역 학생과 연계한 농어촌 가치 확산 콘텐츠 기획 및 홍보, 공사의 ESG 경영 기반 사회공헌활동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의 인재 육성 사업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현장 견학 등 젊은 세대들이 농어촌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사는 농어촌과 상생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6월 광주·전남 경기 또 악화...소비·건설투자 ‘부진의 늪’

판매액·수출입·부동산 등 감소

광주·전남지역의 경기지표가 또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수요 측면은 부진했고, 전남은 생산과 수요 모든 부문에서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6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년 동월(96.1) 대비 5.5% 감소했다. 업태별로 백화점(-3.2%)과 대형마트(-8.5%) 모두 감소한 영향

이다.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도 6월 기준 2038억원으로 전년 동월(2126억원)보다 4.1% 감소했다.

광주는 건설 투자에서도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시 6월 중 건축착공면적은 1년 전보다 87.1% 감소한 2만 2000㎡를 기록했다. 주거용과 상업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공업용(-89.3%), 기타(-88.8%) 등이 감소한 결과다.

같은 기간 전남은 생산 측면에서 화학제품(-6.6%), 기타운송장비(-22.4%) 등이 줄면서 제조업 생산이 5.0% 감소했다.

전남은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 수출입, 건설 투

자, 부동산 등 모든 지표가 부진했다.

전남 6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8로 전년 동월(86.3)에 견줘 7.5% 감소했고, 판매액은 4.1% 줄어든 615억원을 기록했다.

건설투자에서도 건축착공면적은 0.3% 감소한 33만 7000㎡를 기록했다. 주거용(-27.4%), 상업용(-0.2%)이 감소세를 견뎠다.

전남의 수출은 주력 산업인 화학공업제품(-26.1%)과 석유제품(-3.9%) 등의 감소로 7.3% 줄었다. 수입도 원유 등 농·수·광산물(-11.6%)을 중심으로 9.0%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출 규제 예금까지 쥐어짜다 예담대 열흘 만에 900억 급증 DSR 예외 예담대에 쏠림현상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시민들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과 비교하면 약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했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다 보니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던 예금까지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전수요까지 물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306만곳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당 평균 40만원 혜택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 등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하반기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엔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신규 가맹점은 반기별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을 받는 가맹점에 대한 총 환급액은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 당 평균 4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차액 환급은 다음 달 26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 8000개와 택시 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받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24.37 (+34.46)
↑ 코스닥	814.10 (+6.91)
↓ 금리(국고채 3년)	2.417 (-0.014)
↓ 환율(US D)	1379.65 (-10.25) 〈오후 5시 03분 기준〉